

# 육추 사료유실 방지에 성공한 이호근 씨

— 경기도 의정부 경원농장에서 —

얼마전 주문식단제가 실시되자 찬반양론의 소리가 무성하게 나돌았다. 국민위생과 음식물의 낭비 방지를 내세우는 쪽과, 오랜 식습관을 인위적으로 바꾸는데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쪽으로 크게 갈린 것이다. 결국 후자쪽은 불만을 털어버리지 못한 채 국제적 행사나 하는 등의 명목앞에 자의반타의반으로 고개를 수그리게 되고 말지만.

그러나 닭에 주문식단제가 도입될 경우 앞서 말한 후자의 반발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어린병아리라면 식습관이 채 형성되기 이전이므로 하등 우려할 것이 없다. 문제는 어떻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료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가 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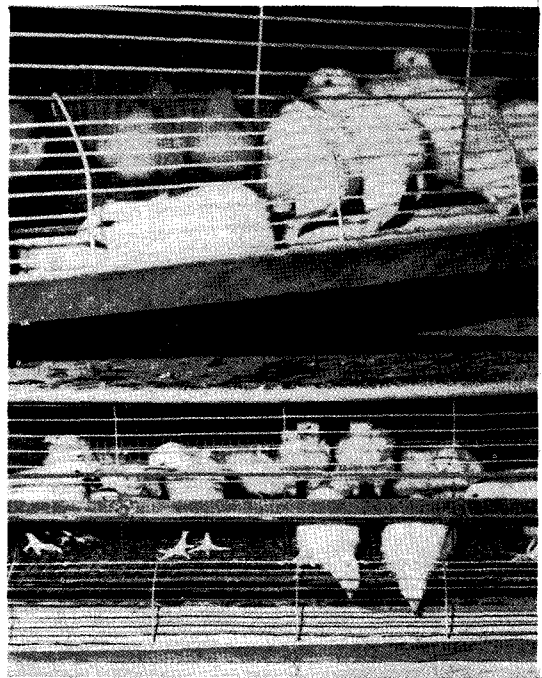
매년 수억달러를 사료수입에 써버리며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 사료절감에 전 축산업계가 부심하고 있는 이때에, 본지는 육추시 사료유실 방지에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해낸 경원농장의 이호근씨를 찾았다.

## 사료 마구 헤치고 병아리가 케이지에 목이 끼인채로 죽어

이호근씨는 육계 10,000수를 사육하는 2명의 관리인 중의 한사람이다. 그가 양주군 회천면 울정리에 위치한 이 경원농장에 온 것은 불과 4개월 전으로 바로 이 4개월의 기간이 그의 양계경험의 전부다. 그러한 그가 병아리 육추시에 사료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내기까지는 남다른 주의력과 노력이 숨겨져 있었음을 누구나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낮설고 어색하기만 하던 육추사가 점차 그의 몸에 배어갈 무렵, 그러니까 지난 1월초순 무심코 육추사를 들어서던 그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사료통속에서 몇마리의 병아리가 사료를 휘젓고 있는 모습이 새삼스레 눈에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다른 케이지로 가 보았죠. 그랬더니 병아리가 사료를 헤치고 있는 것이 몇군데 눈에 띄었고, 한 곳에서는 사료통과 케이지 사이에 병아리가 목이 끼인채로 죽어 있었읍니다. 물론 전에도 여러번 보았지만 그날은 왠지 썩기는 듯한 기분이었읍니다.」



그때 그의 머리를 때린 것은 ‘왜?’였다. 그 수많은 관리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도 어째서 이제까지 지나쳐 왔을까 하는 의문이 그의 가슴을 파고 들었다. 그는 즉시 즉시 사장에게 이웃 양계장에서 다 그런가고 물었다.

### 처음 평형 철판을 사용했다가 문제점 발견

그날부터 그는 며칠동안 밤잠을 설쳤다. 목이 끼인 병아리와 사료를 마구 파헤치는 병아리의 모습이 맴돌았던 것이다.

「우연이었습니다. 케이지의 앞부분은 사료를 쉽게 먹이고 병아리 입출하시 편리하도록 공간이 넓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쯤에다 가로막대를 쳐두면 병아리가 맘대로 사료통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제 머리를 펄득 스쳐갔습니다.」

가로대를 설치해보는 방법을 생각하게 된 것은 실로 우연이었다고 이호근씨는 말한다. 과연 그랬을까.

「그리고는 의정부시내로 달려가서 철판 두개를 맞춰와서 케이지에 설치해 보았죠. 그걸 지켜보니까 제 예상대로 똥판(계분이 떨어지는 위치에 놓인 널판지)으로 떨어지는 사료량이 금방 줄어든 것 같았어요. 사장님이 보시고 그럴 듯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무언가 일이 잘돼 가는구나 하고 흥분이 되더군요.」

그러나 그는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된다. 하루가 지나보니 널판지(똥판)에 떨어진 사료가 꽤 많았던 것이다. 아무래도 직선형의 철판으로는 사료통의 윗부분과 사이가 뜨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철판의 끝부분을 사료통 상부의 각도에 맞게 구부림을 하는 일이었다.

### 전 양계인에게 알려 사료 유실방지에 도움 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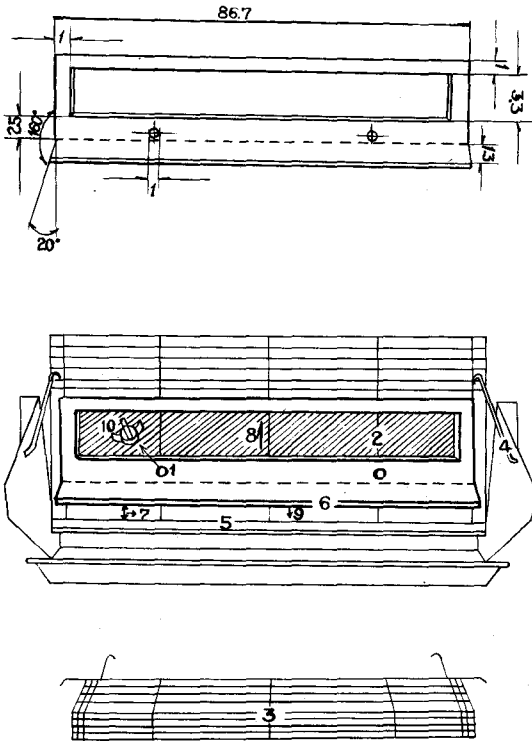
「저는 양계업계에 발을 들여놓은지 겨우 4개월 남짓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료유실방지대를 케이지에 부착하는 방법이 다른 곳에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 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저의 방법이 아직껏 이용되지 않고 있다면 널리 알려져 조금이라도 사료 유실을 줄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사용해본 바로는 사료를 흘리는 일이 거의 생기지 않았읍니다.」

우리 양계업계에는 10년 혹은 그 이상 양계업에 종사해온 사람들이 허다하다. 그리고 그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경험을 자랑한다. 그러나 오늘은 타성에 빠져있는 그들이 이름모를 햇병아리에게 일침(一針)을 맞은 셈이다. 우리는 오늘의 일침을 따갑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

이 호근씨는 의정부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후 안양공전을 졸업한 공학도 출신이다. 그런 그가 양계업계에 발을 디디게 된 것은 우연이라면 우연이라 할 수 있다. 그의 매형은 지난 수십년간 육계를 전문으로 해온 베테랑이었지만



## 조 작 법



- 조작구멍 ①은 케이지 ②의 위치에 따라 알맞는 위치에 뚫는다.
- 모이통 앞면 ③을 제거하고 모이통고리를 ④ 같이 하는 것이 조작상 간편하다.
- 조절너트 ⑩을 적당히 조여 방지대를 상하로 조작하기에 편리하도록 한다.
- 초생주 입추 당일에는 방지대 하단 ⑥을 모이통 상부 ⑤와 적당한 간격 ⑦으로 병아리가 모이통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 간격을 준다.
- 입추후 5~7일이 경과하면 방지대하단 ⑥을 모이통 상부와 밀착시켜 방지대 공간(빗금친 부분)으로 모이를 먹게 함으로써 유실을 최소로 줄인다.
- 방지대 하부와 모이통 상부를 밀착시킨 후 모이를 잘 먹을 수 있나를 확인하고 타당하다면 대추실로 옮기는 날까지 그 상태로 유지시킨다.
- 대추실로 옮기기 위해 닭을 뺄 때는 방지대를 ⑧의 화살표 방향으로 최대로 올린후 뺐다.

지난 83년 육계과파때 누구나 그러했듯이 심한 타격을 입었다. 좀체로 회복이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일거리를 구하고 있던 그가 찾아왔던 것이다.

### 남의 반찬이 식탁에 되올려지는 일 없어야

「사육자들은 통상적으로 계사내에 널려 있는 사료가 아까와 계분을 체로 걸러내고 병아리에 게 다시 먹이는데요, 모이에 민감한 병아리에 게는 심한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다. 식당에서 남이 먹다 남은 반찬이 다시 자신의 식탁에 되올려질 때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게다가 이것은 질병전파의 요인도 되기에 더욱 위험천만이다.

우리는 지난 83년을 잊지 못한다. 육계가격은 폭락하고 사료값은 치솟고 있을 때 우리는속수무책이었음을 뼈아프게 기억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해결 가능한 문제부

터 실마리를 찾아 해결해 나가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이번에 이 호근씨가 발견해낸 사료 유실방지 방법은 어쩌면 대단한 것이 아닐런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방법이 통용되기 까지는 설치비용문제와 번거로움이 따른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케이지제작사, 사육자들이 방법적인 면에서 꾸준히 검토를 한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심과 노력이다. 양계인이라면 누구나 초생추사육시 사료허실을 경험하면서도 그 해결에 대한 관심은 별로 두지 않았었다. 이제는 종업원은 종업원대로 관리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경영주는 경영주대로 종업원들의 생각에 좀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왔다.

그리고 본지는 이 호근씨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몇굽이의 파도가 그의 앞으로 밀어닥 칠런지 알 수 없으나 그는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盡人事待天命이다.

(본지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계속 발굴하여 소개하려 한다.)